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자존감이 학업 도움 추구 및 은폐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 특성불안을 매개로

정은선¹, 하정희^{2*}

¹한라대학교 교직과정부, ²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The Comparison of Academic Contingencies of Self-Worth and Self-Esteem on Academic Help-Seeking and Academic Conceal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Trait Anxiety in University Students

Eun-Sun Jung¹, Jung-Hee Ha^{2*}

¹Division of Teaching Profession, Halla University

²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자존감이 학업장면에서 도움추구와 은폐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특성불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25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254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PASW WIN 18.0을 사용하였으며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은 불안 및 학업도움추구, 은폐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자존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은 학업적 도움추구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은폐 및 불안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자존감은 불안을 매개로 하여 은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자존감이 은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은 불안을 높임으로써 은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존감은 불안을 낮춤으로써 은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자존감이 학업장면에서 도움추구 및 은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 과정을 불안이 매개한다는 점,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자존감이 불안에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교상담 및 교육장면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였고 제한점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of trait anxiety in the relationships among academic contingencies of self-worth, self-esteem, academic help-seeking, and academic concealment. The participants were 254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and the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PASW 18.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nxiety was confirmed to be a mediating variable between the academic contingencies of self-worth, self-esteem, and academic concealment. That is, the academic contingencies of self-worth and self-esteem had an effect on academic concealment through anxiety. On the other hand, the academic contingencies of self-worth had a positive effect on anxiety. On the other hand, self-esteem had a negative effect on anxiety. The need to develop education and counseling approaches as a special intervention is discussed. The approaches are meant to reduce the academic self-worth and anxiety.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promote self-esteem in education and counseling.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 for further study are suggested.

Keywords : academic contingencies of self-worth, self-esteem, academic help-seeking, academic concealment, trait anxiety

*Corresponding Author: Jung-Hee Ha(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Tel: +82-2-2220-2613 email: hajung366@hanmail.net

Received December 27, 2016

Revised (1st January 12, 2017, 2nd January 17, 2017)

Accepted February 3, 2017

Published February 28, 2017

I.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 13~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성적, 적성 등 학업과 관련된 영역이 고민이라는 응답이 57.9%의 압도적인 수치로 나타났다[1]. 어려운 입학시험을 치르고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도 학업에서 성취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삶의 과제이다[2]. 학업 과정 동안 치르게 되는 여러 번의 시험 결과는 학업성취로 간주되고, 진학이나 진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공과 실패로까지 인식되곤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업의 결과를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 및 자기의 가치와도 밀접하게 관련짓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긴장과 불안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자기’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학업 수행이나 학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

학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변인 중 하나가 ‘자존감’이다. 자존감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나 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3-4]. 자존감은 개인의 적응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데, 가령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고 삶에 대한 만족감이 더 크며, 불안이 낮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5-6]. 하지만 이와는 달리, 단순히 높은 자존감을 갖는 것이 개인의 적응이나 사회문제에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7]. 이를테면, 자존감이 높을지라도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공격적 행동을 보이거나[8], 부적응과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9-10].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11]가 지적하고 있듯이, 단순히 자존감 수준의 높고 낮음의 결과로서만 이해하는 것은 자기의 역할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제한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장면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자존감 이외에, ‘자기가치감’을 함께 고려하였다. 자기가치감(self-worth)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대한 것으로서, 학업적 자기가치감이란 학업적 측면에서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12]. 자기가치감의 기본 요인은 유능감(competence)과 성취(achievement)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스스로가 유능감을 느끼거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자기가치감이 고양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가치감이 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의 동기부여와 기분에도 영향을 주어 [13-15], 궁극적으로는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듯 자존감과 자기가치감은 모두 학생들의 학업 수행이나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에 틀림없으나, 자기 역할에 따른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보호하며 고양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마다 성공이나 만족을 추구하는 영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때 개인의 자존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서로 다르다[16]. 개인의 자존감이 특정 영역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때, 자존감은 그 영역에 수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특정 영역에서의 성공 또는 실패에 수반되어 자기의 가치를 판단하는 자기가치감과 특정 영역의 성패와는 무관하게 자기 스스로가 경험하는 존중감은 학업 수행 장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것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업장면에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도움을 추구한다면 곤란함을 극복할 수도 있으나, 도움을 추구하지 않고 어려움을 은폐한다면 해결하기 어렵다. 은폐는 완벽주의 및 우울과 불안 같은 심리적 부작용과 정적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17-18] 있다. [18]에 따르면 자기지향적 완벽주의가 높은 학생은 학업의 어려움을 감추지 않고 도움을 추구하려 하나, 사회지향적 완벽주의가 높은 학생은 학업의 어려움을 오히려 은폐하려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에 대한 평가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식이 관련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업에서 어려움에 당면하는 상황일지라도 어려움을 개방하고 도움을 추구한다면 실질적인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적 불편감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업의 성패와 자신의 가치를 연결 지어 생각한다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일지라도 도움을 추구하기 보다는 감춤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손상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한편, 자존감 및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학업도움추구 및 학업적 은폐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불안이 이들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발견하고자 하였다. 학업 과정 중에 피할 수 없는 잦은 시험과 평가는 개인으로 하여금 걱정과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이 낮

고[19],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은 상황에서도 불안을 덜 느끼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적절한 불안과 긴장이 높은 학업성취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지나친 불안은 오히려 학습 능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20-21]. 만약 학업장면에서 불안의 역할에 대해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뒷받침 된다면 이는 불안이라는 변인 자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학습장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적극적인 조력 방법을 모색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자존감이 학습상황에서 학부모나 교사, 상담자에게 개방하고 도움을 청하거나 어려움을 숨기는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불안의 매개역할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 및 자존감과 학업도움 추구 및 학업적 은폐와의 전체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조력할 수 있는 개입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설 1.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학업적 도움추구, 학업적 은폐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 가설 2. 자존감과 학업적 도움추구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자존감과 학업적 은폐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 가설 3.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 학업적 도움추구, 학업적 은폐 간의 관계에서 특성 불안이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가설 4. 자존감과 학업적 도움추구, 학업적 은폐 간의 관계에서 특성 불안이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자존감 및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학업 도움추구, 은폐와의 관계

자존감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차원으로서 학업 성취와 관련되는 개인적 요인으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어 왔으며[3,22], 학업에서 우월성, 최적의 학업성취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22]. [23]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존감은 학업성취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으나 학습태도와 교과에 대한 선호를 매개하여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특정 영역에서 위협을 더 잘 떨쳐 버릴 수 있다[24-25]고 보았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더 긍정적이고 분명한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26]. 따라서 아주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과제와 연관된 자존감 영역에 투자하는 것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상되는 실패로부터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당하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는 과제를 제쳐놓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 경험하는 일반적인 자존감과는 달리 특정 영역의 성취 결과와 자신의 가치를 연결 지어 생각하는 경우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자기가치감(self-worth)이란 한 개인으로서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 가로 정의된다[12]. 자기가치감은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나 부적응을 설명할 때 중요한 변인이 되며, 임상적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경험적 자료로 제시된 바 있다[27]. 유능감(competence)과 성취(achievement)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자기가치감을 구성하는 기본요인으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특정한 과제에서 유능감을 느끼는 것은 개인의 전반적인 자존감 형성에도 필수적인 것이라 하였다[28]. 자기가치감은 유능감 및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통해 형성되고 다양한 동기과 기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후 [29]는 ‘자기가치감 수반성(Contingencies of Self-Worth; CSW)’ 개념을 제안하면서 인간은 특정한 영역에서 성공을 추구하거나 실패를 피함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하고 보호하며 고양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특히 그러한 특정한 영역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여부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하였다[16]. [16] 등은 대학생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Contingencies of Self-Worth Scale: CSWS)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타인의 승인, 외모, 경쟁, 학업적 자신감, 가족의지지, 도덕성, 신의 사랑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확인되었다[30]. 예를 들면, 자존감과 학업성취와 관련된 수반정도가 높은 학생들은 대학원 입학 시험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자존감이 크게 하락하는 반면에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는 크게 향상되는 등 자존감의 차이가 컸다. 이에 비해 학업 성취에 대한 수반정도가 낮은 학생들은 합격 여부에 상관없이 자존감의 변화가 없었다[29]. 이는 일반적인 자존감과 특정영역 특히 학업의 성패와 자신의 가치를 연결 지어 생각하는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학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을 예상하게 하는 결과이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학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음으로써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학업의 곤란을 극복하는 것과 더불어 정서적인 불편감도 줄어줄 수 있을 것이다.

도움 추구(help-seeking)를 학업장면에서 살펴본 초기 연구에서는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개인의 독립과 능력발달에는 방해됨으로써 잠재적으로는 부적응적인 것으로 여겼다[31].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자기조절학습 모델과 학생들의 문제 대처와 관련된 두 관점이 제기된 이래로 도움추구에 대해 이해가 보다 넓어졌다. 자기조절학습은 스스로 자신의 학습과 동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 행동을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32]. 이러한 측면에서 도움추구는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잠재적으로 적응적인 전략이다[33-34]. 도움추구는 학생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학업활동에 다시 건설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다. 동기가 높은 학생들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들은 도전적인 학습과제에 점점 더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은폐는 문제 대처 방식의 하나로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차단하게 하고, 학습 과제 참여는 약화시킨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욱 감추게 된다. 학생이 학업소진을 경험할지라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불편감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삶의 불만족을 덜 경험한다는 선행연구[35]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이 학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개방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과 불안 같은 심리적 부적응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학업중단의도와 도움추구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36], 학업중단의도는 도움 추구를 낮추는 직접적인 효과를 보였다. 학업중단의도를 경험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실제 삶의 질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37].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38] 자아 개념이 부정적인 청소년들의 경우에 도움요청을 더욱 회피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추구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처지를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도움을 추구하는 자신을 어리석게 볼 것이라는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 된다[36].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17],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자기은폐 및 우울, 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어려움을 감추려는 시도는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존감 및 학업장면과 자기가치를 연결 지어 생각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추구하거나 감추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론을 검증함으로써 자존감 및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에 따라 대학생들의 학업적 도움추구와 은폐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2.2 자존감 및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특성불안의 관계

자존감은 개인을 불안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신감과 인내심, 대인관계 역량을 높임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9].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걱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존감이 향상됨으로써 불안을 덜 느낀다는 것이다[40]. 학업에서도 시험불안이 높은 학생은 낮은 학생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하는 한편 긍정적인 자기평가는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나[41], 자존감과 불안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성취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자존감은 고등학생의 시험불안을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자존감이 높은 학생은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더라도 시험 불안 수준이 낮지만,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는 시험불안 수준이 높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과제와 연관된 영역에서 자기가치에 기반을 둘수록 노력을

덜 투자함에도 매우 어려운 과제를 수행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실패의 위협에서 더 잘 벗어나기 때문에 낮은 사람들보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일축하는 것도 더 잘 하기 때문이다[42].

자기가치감 역시 우울이나 불안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고[43-44], 자기가치감이 개인의 기분이나 동기에 영향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영역에서 자기가치에 투자하는 것은 그 영역에서 성공하기 위한 동기를 증가시키도록 이끈다. 동기는 누군가 최선의 노력이 성공의 결과를 이끌 것이라는 것이 분명할 때, 노력을 더 많이 하고 더 나은 성취를 포함하여 자기조절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이끈다.

불안은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는 요인 중의 하나로 여러 연구에서 완벽주의, 스트레스 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을 보였고[45] 학업과 관련하여 자존감, 성취 등과도 관련되어 연구되었다[4]. 사회적 장면에서 자신의 결점을 타인이 알게 되면 거절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기 쉽고, 이로 인해 자신의 실수와 결점을 최대한 감추려 한다[46-47]. 이 과정에서 개인은 결점이나 부족한 점을 공개하고 개선을 위한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대처전략의 하나로 자기 은폐를 시도하고, 이는 타인의 도움이나 피드백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을 방해하고 결국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48].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17] 불안은 우울과 함께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은폐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 특히 학교생활 동안 여러 차례 시험을 치러야 하고 그 결과로 학업능력과 성취도를 평가 받는 상황은 학생들로 하여금 긴장과 불안을 경험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존감은 시험불안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41,49],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임으로써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존감과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은 특성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을 통해 학업 능력과 성취도를 자기 자신의 가치와 연결 짓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안을 경험하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업 수행 과정에서의 불안의 역할을 정교하게 이해하고 학업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도록 돕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2015년 11월 16일부터 12월 3일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 두 곳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남, 여 대학생 258명을 대상으로 표집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전공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표집하기 위한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는 교양필수과목(교양영어), 교양선택과목(인간관계심리학), 교육학(교육사회학, 교육학개론) 과목을 수강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참여한 258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부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총 254명(남자 153명(60.7%), 여자 97명(38.5%), 무응답 2명(0.8%))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의 연령범위는 19세~28세였고, 전체 연령평균은 21.38세(SD=1.84)로 나타났다.

3.2 측정도구

3.2.1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 척도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Academic Contingencies Self-Worth)은 학업성취의 결과와 자신의 가치를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16].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16]이 개발한 것을 본 연구자 2인과 통번역 전공 교수 1인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의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성과와 자신에 대한 가치가 관련 있다고 여기는 것(예: 시험이나 과제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자존감이 높아진다)을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높은 것(학업 성취의 결과와 자신의 가치가 관련되어 있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16]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3.2.2 자존감 척도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50]이 개발한 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51]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 존중 정도의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51]의 연구에서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5였고, [52] 논문에서의 신뢰도계수

(Cronbach' α)는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79로 나타났다.

3.2.3 학업적 도움추구 및 은폐 척도

학업적 도움추구 및 은폐척도는 [53]이 개발한 척도로 본 연구자 2인과 관련 통번역 전공 교수1인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생들이 학업장면에서 당면할 수 있는 도전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예: (시험을 잘 보지 못했거나 중요한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등) 학교에서 교과목 관련 문제가 있을 때 또는 학교에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형 척도로 학업 도움추구(예: 나는 관련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도움을 청한다, 나는 선생님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청한다.)는 5문항, 은폐(예: 나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9문항으로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3]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학업도움추구 .79, 은폐 .86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각각 .79, .91로 나타났다.

3.2.4 특성 불안 척도

특성불안 척도는 [54]가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척도를 [55]가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 문항 각각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성격적인 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특성불안 척도 20문항을 사용하였다. 4점 Likert형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의 합이 클수록 불안감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56]의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7로 나타났다.

3.3 연구절차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 자존감, 학업적 도움추구, 학업적 은폐, 특성불안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4년제 대학교 두 곳에서 설문을 실시하였다.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 10문항, 자존감 10문항, 학업적 도움추구 5문항, 학업적 은폐 9문항, 특성불안 20문항으로 이루어진 총 54문항의 설문패키지로 구성되었으며 약 15분 동안 진행되었다. 설문을 실시하기 전에 안내를 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실시 후에 연구 내용과 목적, 예상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수거한 설문은

PASW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4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PASW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변인의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아울러, 가설 1과 2를 검증하고자 변인들 간의 단순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자존감과 학업적 도움요청/학업적 은폐와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57]이 제시한 세 단계의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 자존감, 학업적 도움추구, 학업적 은폐, 불안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인들 즉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 자존감, 학업적 도움추구, 학업적 은폐, 특성불안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모든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Correlations of Variables, Descriptive Statistics, skewness and kurtosis (n=254)

Variables	1	2	3	4	5
1	-				
2	-.20**	-			
3	.14*	.22**	-		
4	.23***	-.31***	-.02	-	
5	.26***	-.64***	-.20**	.33***	-
M	4.43	3.47	2.79	2.01	2.24
SD	.96	.54	.50	.62	.47

* $p < .05$, ** $p < .01$, *** $p < .001$

Note. n=sample size.

1. academic contingencies of self worth, 2. self-esteem, 3. academic help-seeking, 4. academic concealment, 5. trait anxiety

표 1을 통해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 자존감, 학업적 도움추구, 학업적 은폐, 특성 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은 자존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 = -.20, p < .01$). 또한,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은 학업적 도움추구($r = .14, p < .05$) 및 학업적 은폐($r = .23, p < .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불안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r=.26, p<.001$).

한편, 자존감은 학업적 도움추구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r=.22, p<.01$, 학업적 은폐($r=-.31, p<.001$) 및 불안($r=-.64, p<.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가설 1과 2가 지지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4.2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학업적 도움 추구 및 학업적 은폐와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학업적 도움추구 및 학업적 은폐와의 관계에서 불안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57]이 제안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매개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 번의 회귀분석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먼저 (1)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하여야 하며, (2)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해야 한다는 것이고, (3)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도록 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하면서 (1)의 독립변인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남은 독립변인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효과가 크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0이 되면 완전한 매개효과를 지닌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에 제시한 절차에 따라서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학업적 도움추구 및 학업적 은폐와의 관계에서 각각 불안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그림 1을 통해 먼저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학업적 도움추구 간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불안을 통제할 후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은 학업적 도움추구를 유의하게 예언하였으나 그 수치가 줄어들지 않음으로 인해 [57]이 제안한 (3)의 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가 성립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학업적 은폐와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은 불안(절차 1, $p=.26, p<.001$) 및 학업적 은폐(절차 2, $p=.23, p<.001$)를 유의하게 예언하였으며,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도록 하는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인인 불안이 종속변인인 학업적 은폐를 유의하게 예언하였다(절차 3, $p=.30, p<.001$). 동시에, 불안을 통제할 후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은 학업적 은폐를 여전히 유의하게 예언하였으나 그 수치가 상당히 감소하였다(절차 3, $p=.15, p<.05$). 이를 [58]이 제안한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도 불안의 매개효과는 $b=.15$ 로 직접효과 .23보다 작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Z=3.12, p<.001$). 따라서 불안은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학업적 은폐와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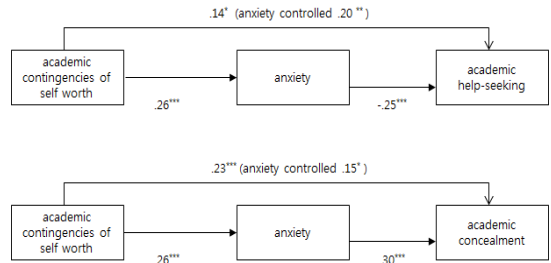


Fig. 1. The effects of academic contingencies of self-worth on academic help-seeking and academic conceal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anxiety
* $p<.05$, ** $p<.01$, *** $p<.001$

4.3 자존감과 학업적 도움 추구 및 학업적 은폐 간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

앞서 제시한 그림 1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먼저 그림 2를 통해 자존감과 학업적 도움추구와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립변인인 자존감과 매개변인인 불안이 동시에 종속변인인 학업적 도움추구를 예언하도록 하는 회귀분석에서(절차 3), 불안은 학업적 도움추구를 유의하게 예언하지 않았으므로 자존감과 학업적 도움추구와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는 성립되기 어렵다.

다음으로 자존감과 학업적 은폐와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존감은 불안(절차 1, $p=-.64, p<.001$) 및 학업적 은폐(절차 2, $p=-.31, p<.001$)를 유의하게 예언하였으며,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도록 하는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인인 불안이 종속변인인 학업적 은폐를 유의하게 예언하였다(절차 3, $p=.24, p<.01$). 동시에, 불안을 통제할 후 자존감은 학업적 은폐를 여전히 유의하게 예언하였으나 그 수치가 상당히 감소하였다(절차 3, $p=-.16, p<.05$). 이를 [58]이 제안한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불안의 매개효과는 $b=-.16$

으로 직접효과 -.31보다 작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Z=3.02, p<.01$). 따라서 자존감과 학업적 은폐와의 관계에서 불안의 부분 매개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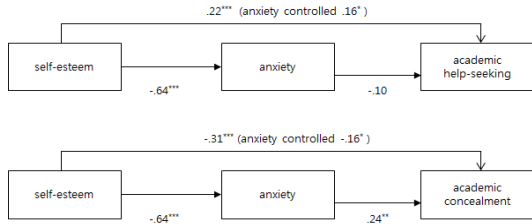


Fig. 2. The effects of self-esteem on help-seeking and academic conceal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anxiety

* $p<.05$, ** $p<.01$, *** $p<.001$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자존감이 학업도움추구와 은폐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불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자존감 및 학업도움추구와 은폐, 불안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수행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먼저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 자존감, 학업적 도움추구, 학업적 은폐, 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은 학업적 도움추구 및 학업적 은폐, 불안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인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이 지지되었다. 또한 자존감과 학업적 도움추구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 자존감과 은폐 및 불안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가 지지되었다.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자존감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상담 및 교육영역에서 학업에 수반되는 자기가치감을 낮추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조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어려운 입시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여전히 학업의 결과를 자신의 가치와 연결 지음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어려움을 감추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성적을 통해 자신을 평가하거나 가치를 매기지 않고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이들은 긴장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자존감 향상을 통해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 아동들의 우울과 불안을 낮추었다는 선행 연구[3]에서 볼 수 있듯이, 자존감 향상을 위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집단 상담이나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학업적 도움추구 및 학업적 은폐와의 관계에서 불안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58]이 제안한 절차에 따라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학업적 도움추구 간의 관계에서는 불안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학업적 은폐와의 관계에서는 불안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장면에서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 자존감이 실제 학업성취도와 학업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5,22,27]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움추구 및 은폐, 불안과도 관련 있음을 보고한 연구[6,38]의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를 지지해준과 동시에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자존감이 학업장면에서 서로 다르게 기능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자기가치감에 대한 연구는 애착과 스트레스[59], 자기평가[4] 등에 관한 소수의 연구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학구열이 높고 학업성취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해볼 때 자기가치감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은 단순히 학업영역만이 아니라 개인의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나 학업장면에서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결과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에 대한 연구의 폭이 확대됨은 물론, 학생들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자존감과 학업적 도움추구 및 은폐와의 관계에서 불안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존감과 학업적 도움추구의 관계에서는 불안의 매개효과는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존감이 학업적 은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불안의 부분 매개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설 4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학업적 도움추구는 더 많이 하고 은폐는 적게 하는 한편, 자존감이 높을수록 불안을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업적 은폐를 덜 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과 정신건강, 도움추구간의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 [4,39]와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삶의 질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 연구[40]들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학업에서 곤란을 겪을 때일수록 어려움을 감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자존감이 학업적 은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불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이 학업적인 어려움을 숨기는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에서 높은 불안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자존감은 각각 불안에 다른 영향을 미쳤는데,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높은 학생들은 불안이 커짐으로 인해 자신의 학업적 곤란함을 더욱 감추는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학생들은 불안이 낮아지면서 자신의 학업적 어려움을 덜 은폐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학업의 결과를 자기가치와 밀접하게 연결 지어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불안함을 느끼고 학업적 어려움을 숨기는 반면,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불안감을 덜 느끼기 때문에 학업수행 시에 어려움을 감추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업에서 도움추구를 더 많이 하고 은폐를 덜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자존감의 향상과 더불어 불안을 낮추기 위한 개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위의 결과에서 학업적 도움추구는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 자존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불안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추후 학업과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 밖의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학업적 도움추구와 은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보다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해 보인다. 학업적 도움추구 및 은폐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은 앞으로 경험적인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으로 주목할 부분이다. 추후에 학업적 자기가치감 수반성, 학업적 도움추구 및 은폐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다른 청소년 대상들을 대상으로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근래에 초등학생[5], 중고등학생[22]을 대상으로 자존감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보고되기는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처럼 불안 등의 심리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학업에서의 어려움은 심리적 부적응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됨을 거듭 확인한 바, 다양한 대상을 통해 학업곤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Search word: Youth Worry, 2014 Statistics Korea,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14FA142R&vw_cd=MT_ZTITLE&list_id=D211_201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Search date: 2016.11.02.), 2014.
- [2] Halla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Center, *Student Counseling Center Annual Report in 2014*, 1-94, Halla University, 2014.
- [3] H. C. Choi. & B. S. Kim., "A casual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using autoregressive", *Studies on Korean Youth*, 20(2), 327-356, 2009.
- [4] S. M. Hwang, & H. H. Chung, "The moder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n the relative between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and high school students' test anxie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5), 1-20, 2012.
- [5] H. S. Kim., & H. S. Kim., "The effects of the self-esteem improve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on depression and anxiety for children with the maladaptive perfectionism",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5(5), 1735-1750, 2014.
DOI: <https://doi.org/10.15703/kjc.15.5.201410.1735>
- [6] S. R. Lee., & D. G. Lee., "The effect of discrepancies between a given domain of contingencies of self-worth and its self-evaluation in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 313-335, 2008.
- [7]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 Public Interest*, 4(1), 1-44, 2003.
DOI: <https://doi.org/10.1111/1529-1006.01431>
- [8] Baumeister, R. F., "Low self-esteem does not cause aggression", *APA Monitor*, 30(4), 3-22, 1999.
- [9] Dawes, R. M. *House of cards: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built on myth*. New York: Free Press, 1994.
- [10] Smelser, N. J., "Self-esteem and social problems: An introduction", In A.M. Mecca, N.J. Smelser, & J. Vasconcellos (Ed.), *The social importance of self-esteem*(1 - 23),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 [11] Crocker, J., & Knight, K. M., "Contingencies of self-worth",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August, 14(4), 200-203, 2005.
- [12] Harter, S., "Historical Roots of Contemporary Issues Involving Self-Concept", In B. A. Bracken(Ed.), *Handbook of Self-Concept*, NY: John Wiley & Sons, 1996.
- [13] Leary, M. R., & Baumeister, R. F. *The nature and function of self-esteem: Sociometer theory*, In M. Zann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2, 1-6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2000.
DOI: [https://doi.org/10.1016/s0065-2601\(00\)80003-9](https://doi.org/10.1016/s0065-2601(00)80003-9)
- [14] Pyszczynski, T., & Cox, C., "Can we really do without self-esteem?: Comment on Crocker and Park", *Psychological Bulletin*, 130(3), 425-429, 2004.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30.3.425>
- [15] Sheldon, K. M., "The benefits of a "sidelong" approach to self-esteem need satisfaction: Comment on Crocker and Park", *Psychological Bulletin*, 130(3), 421-424, 2004.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30.3.421>
- [16] Crocker, J., Luhtanen, R., Cooper, M. L., & Bouvrette, S. A., "Contingencies of self-worth in college students: Measurement and theory",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85, 894-908, 2003.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85.5.894>
- [17] J. E. Shin. & D. G. Lee.,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in high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alment", *Studies of Korean Youth*, 22(2), 55-79, 2011.
- [18] E. S. Jung, & J H. Ha., "Mediating effects of help-seeking and concealment on the relations between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nxiety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4), 671-681,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4.671>
- [19] Tenne, H., & Herzgerger, S., "Depression, self-esteem, and the absence of self-protective attributional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72-80, 1987.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2.1.72>
- [20] Y. W. Lim., "A historical study on the Korean science education policies fo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4.
- [21] K. Y. Hwang., "Effects of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training methods on test anxiety reduction",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1995.
- [22] C. S. Lee., H. R. Son. & H. Y. Jang, "Effects of self-esteem, aggression and violence recognition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7), 29-36, 2016.
DOI: <https://doi.org/10.14400/JDC.2016.14.7.29>
- [23] J. H. Kim., "The regression analysis on academic achievement related variables in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9(4), 349-366, 2001.
- [24] Brockner, J., "The effects of self-esteem, success-failure, and self-consciousness on task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732-1741, 1979.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37.10.1732>
- [25] Brockner, J., Derr, W., & Laing, W., "Self-esteem and reactions to negative feedback: Toward greater generalizabi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1(3), 318 - 333, 1987.
DOI: [https://doi.org/10.1016/0092-6566\(87\)90014-6](https://doi.org/10.1016/0092-6566(87)90014-6)
- [26] Campbell, J. D. & Lavalee, L. F., "Who am I? The role of self-concept confusion in understanding the behavior of people with low self-esteem", In R. F. Baumeister (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3-20, New York: Plenum Press, 1993.
DOI: https://doi.org/10.1007/978-1-4684-8956-9_1
- [27] Marold, D. B., Harter, S., & Whitesell, N. R., *Dimensions of Depression among an Inpatient Sample of Adolescent with Psychiatric Diagnoses of Depression*.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Denver, 1993.
- [28] G. J. Kwak. & G. Y. Kim., "Self-concept development (II): The relationships between general self-worth, depression, and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Development*, 10(1), 15-26, 1997.
- [29] Crocker, J. & Wolfe, C. T., "Contingencies of self-worth", *Psychological Review*, 108(3), 593-623, 2001.
DOI: <https://doi.org/10.1037/0033-295X.108.3.593>
- [30] Park, L. E., Crocker, J., & Mickelson, K. D., "Attachment styles and contingencies of self-worth",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10), 1243-1254, 2004.
DOI: <https://doi.org/10.1177/0146167204264000>
- [31] Baltes, M. M. *The many faces of dependen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32] Schunk, D. H., & Ertmer, P. A., "Self-regulation and academic learning: Self efficacy enhancing interventions", In M. Boekaerts, P. R. Pintrich, & M. Zeidner(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pp.631-649), San Diego: Academic Press, 2000.
DOI: <https://doi.org/10.1016/B978-012109890-2/50048-2>
- [33] Karabenick, S. A. *Strategic help-seeking: Implications for learning and teaching*, Mahwah, NJ: Erlbaum, 1998.
- [34] Ryan, A. M., & Pintrich, P. R., "Achievement and social motivational influences on help seeking in the classroom", In S. Karabenick(Ed.), *Strategic help seeking: Implication for learning and teaching*(pp.117-139), Mahwah, NJ: Erlbaum, 1998.

- [35] E. S. Jung, & J. H. Ha., "Mediating effects and Moderating effects of Anticipated Risks, Anticipated Benefit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Burnout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9), 6009-6018,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9.6009>
- [36] S. K. Na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ntion to drop out of middle school and the intention to seek help: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2(1), 73-89, 2015.
- [37] Swann, W., Chang-Schneider, C., & McClarty, K. "Do people's self-views matter? Self-concept and self-esteem in everyday life", *American Psychology*, 62(2), 84-94, 2007.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62.2.84>
- [38] Karabenick, S. A., & Knapp, J. R., "Relationship of academic help seeking to the use of learning strategies and other instrumental achievement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2), 221-230, 1991.
DOI: <https://doi.org/10.1037/0022-0663.83.2.221>
- [39] J. Ryu., B. M. Kim., H. S. Shin., J. Y. Chung., & N. H. Choi. "Relationship with Stress from University Entrance Competitions, Self Esteem, Coping Strategy of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Crisisonomy*, 6(3), 223-241, 2010.
- [40] Greenberg, J., Pyszczynski, T., & Solomon, S.,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 need for self-esteem: A terror management theory", In R. F. Baumeister (Ed.), *Public self and private self*, New York: Springer-Verlag, 189-212, 1986.
DOI: https://doi.org/10.1007/978-1-4613-9564-5_10
- [41] Pintrich, P. R., & De Groot, E. V.,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33-40, 1990.
DOI: <https://doi.org/10.1037/0022-0663.82.1.33>
- [42] Brook, A. M. "Effects of Contingencies of Self-Worth on Self-Regulation of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2005.
- [43] Strauss, C. C., Forehand, R. L., Frame, C., & Smith, K.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extreme score on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3, 227-231, 1984.
DOI: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1303_2
- [44] Teri, L., "Depression in adolescence: Its relationship to assertion and various aspects of self-imag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1, 101-106, 1982.
DOI: <https://doi.org/10.1080/15374418209533072>
- [45] Einstein, D. A., Lovibond, P. F., & Gaston, J. 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emotional symptoms in an adolescent sample",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52, 89-93, 2000.
DOI: <https://doi.org/10.1080/00049530008255373>
- [46] Blankstein, K. R., Flett, G. L., Hewitt, P. L., & Eng, A.,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nd irrational fears: An examination with the fea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 323-328, 1993.
DOI: [https://doi.org/10.1016/0191-8869\(93\)90223-P](https://doi.org/10.1016/0191-8869(93)90223-P)
- [47] Frost, R. O., Trepanier, K. L., Brown, E. J., Heimberg, R. G., Juster, H. R., & Makris, G. R., "Self-monitoring of mistakes among subjects high and low in perfectionistic concern over mistak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 209-222, 1997.
DOI: <https://doi.org/10.1023/A:1021884713550>
- [48] Larson, D. G., & Chastain, R. L., "Self-concealment: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health implica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439-455, 1990.
DOI: <https://doi.org/10.1521/jscp.1990.9.4.439>
- [49] Turner, B. G., Beidel, D. C., Hughes, S., & Turner, M. W., "Test anxiety in African American school children", *School Psychology Quarterly*, 8(2), 140-152, 1993.
DOI: <https://doi.org/10.1037/h0088835>
- [50]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DOI: <https://doi.org/10.1515/9781400876136>
- [51] B. J. J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The Yonsei Journal of Research*, 11(1), 107-130, 1974.
- [52] J. H. Ha.,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and Self-Esteem on Self-handicapping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3(2), 367-386, 2012.
- [53] Marchand, G., & Skinner, E., "Motivational dynamics of children's academic help-seeking and conceal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1), 65-82, 2007.
DOI: <https://doi.org/10.1037/0022-0663.99.1.65>
- [54]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STAI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1970.
- [55] J. T. Kim., "The relation research of state-trait anxiety and sociability: A review with anxiety theory of Spielberger",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1, 16-26, 1979.
- [56] E. J. Oh., "Effect of trait anxiety on colleg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7(2), 85-107, 2014.
- [57] Baron, R. M., &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58] Sobel, M. E.,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San Francisco: Jossey-Bass, 290-312, 1982.
DOI: <https://doi.org/10.2307/270723>
- [59] J. J. Lim. & S. M. Kwon., "The relationships among adult attachment, breakup distress and growth",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9(1), 321-351, 2014.
DOI: <https://doi.org/10.17315/kjhp.2014.19.1.018>

정은선(Eun-Sun Jung)

[정회원]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2년 8월 ~ 현재 : 한라대학교
교직과정부 교수

<관심분야>

상담자 교육, 영성, 삶의 의미, 학습상담

하정희(Jung-Hee Ha)

[정회원]



- 2006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9년 8월 ~ 2016년 8월 : 한양
사이버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 2016년 9월 ~ 현재 :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청소년상담, 완벽주의, 적응, 소수자특성